

★ 중앙교회 구역 모임(21-40)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198장 주 예수 해변서

227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 포로 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성만찬

1966년 북베트남 상공에서의 공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 포로로 잡혀간 미군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모스 부호를 이용해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알아냈으며, 성경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가르쳤다. 어느 날 독감방에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왔다. 매일 아침 벽을 타고 들려오는 신호를 익힌 그는 서투른 솜씨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971년 봄, 수용소 당국은 포로 세 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필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 동안 레이는 산상수훈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구절을 베껴 쓸 수 있었다. 레이가 그 소중한 성경 구절을 감방에 갖고 올 때마다 동료들은 벽돌 가루로 만든 잉크와 깃대 펜으로 배급받은 휴지 위에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다. 부활 주일, 탐 커티스 대위는 예배를 소집했다. 누군가 커티스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건넸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둔 미역국 잔이 돌려졌다. 커티스가 잔에 대한 말씀을 암송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임시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보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생각했다. 누군가 조용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다. 커티스가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울음이 터졌다. 극심한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23-29)

1. 주님의 성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2. 성만찬을 불경스럽고 형식적으로 받아드려서는 안됩니다.
3. 성만찬을 우상화하지말고 정기적으로 행함으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나눔1. 성만찬은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까?(고전11:23-25, 눅22:19)

나눔2. 떡을 “가지사”(taken), “()”(blessed)하시고, “()”(broken), “주시며”(given)
(마26:26, 고전11:23-24) 네 가지 동작을 생각해 보세요.

나눔3.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고전11:28)

나눔4.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고전11:26)

3. 은혜나누기

- 1) 성찬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 2) 코로나 종식과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 3) 중보기도
 - (1)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님의 영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2)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 (3) 담임목사님, 연구월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주셔서, 주님과 깊은 목상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되게 하소서
 - (4) Prayer 300 Club, 기도의 용사 35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 (5) 말레이시아. 고우진 홍순남.
말레이시아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사님의 사역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핫라인 010-7528-3091

4. 사역나누기

- 1) 교회사역안내

● 10월 생명운동캠페인 85 “The More!” / 남은 한 해, 영적으로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한
영적 성장 캠페인,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 3) 헌금
- 4) 주기도